

# 현대 예술에 대한 논의

이근무\*

\*위덕대학교 교육대학원  
e-mail:kmrhee@uu.ac.kr

## Argument Of Modern Art

Keun-Moo Rhe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Uiduk Univ

### 요 약

인간이 만든 어떤 사유구조, 개념, 문화, 상징 사회현상 들 역시 그 시대 상황 사회조건에서 분리되어 이해될 수 있는 것은 없다, 예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현대적 예술개념은 근대 이후 산업자본주의 발달과 더불어 형성된 것으로 삶의 일상 삶의 조건 현실적 상황과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여타의 기술과 비교하여 특권적 지위에 있는 예술생산자(예술가)와 예술소비자(주로 자본가와 유한계층)만이 예술을 누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의 현실은 더욱 극명하게 예술소비자(자본 계급)에게 선택되는 예술 노동자(예술가)의 영역이 제한되고 계급화 되고 있다. 이러한 구분은 르네상스 이후 근대에 이르러 형성된 것이다. '순수예술'은 그 목적과 방법에 있어서 예술의 독보적인 지위를 확고히 하고자 신의 초월적 능력에 비견되는 창조성의 개념을 독점하며 신비롭고 창조적인 예술가의 개념을 형성하였다

키워드: 순수예술, 예술, 현대예술, 자본주의

### 1. 서론

오늘날 예술로 번역되는 영어 art는 라틴어 Ars로부터 라틴어 Ars는 그리스어 Techne로부터 유래하였다. 테크네는 오늘날의 예술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었다. 고대의 테크네(Techne)의 개념은 일정한 기술에 입각한 인간의 제작활동 일반을 의미한다. 테크네는 영어 Technics의 어원이기도 함) 테크네 개념은 중세의 아르스 개념에까지 이어지며, 따라서 역사적으로 아트는 단지 예술을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며, 오늘날에만 예술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 고대의 아트(ars) 개념, 즉 테크네 안에는 오늘날의 예술에 해당하는 회화와 조각이 포함되어 있으며 오늘과 같은 창작의 의미가 아니라 자연의 '모방(Mimesis)', 즉 자연의 대상을 함으로써(현재의 예술창조의 개념이 아님) 그 대상을 재현하는 이미지를 제작하는 것이라 간주된다. 반면에 오늘날 예술로 간주되는 시와 음악과 춤은 고대의 초창기 아트 개념 속에 포함되지 않는다. 동양에서는 군자가 취해야 할 교양 능력

으로서의 6예는 지금의 예술과 아무런 직접적 관련성이 없으며 예술(예술)은 점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을 이르는 것이었다.[1]

18세기 들어와 자신들의 경제적 사회적 위상이 상승해 가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 자본주의 부르주아들의 욕구는 필요는 증가하게 된다. 신혼 부르주아들은 자기 집을 예술작품으로 장식하고 싶어 했다. 그러나 종교적 신념에 복무하던 성화나 황제와 귀족의 지위를 보여 주던 장식품으로서의 초상화에 비견되는 자신들의 사회적 위상에 걸맞는 장식품이 없던 부르주아들은 자신들의 취향에 부합하는 새로운 무엇인가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처럼 근대 초기에 등장한 신혼 부르주아들에게는 '무엇이 좋은 작품인가?'를 판단할 기준이 필요하였다.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미적 가치 기준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수요에 민감하게 학문의 영역에서 반응한 것이 미학의 대두이다.

### 2. 미학(Aesthetics)의 성립

근대 미학을 정초한 독일의 철학자 바움가르텐(A. G. Baumgarten, 1714 - 1762)은 [미학(Aesthetica)](1750)이라는 책에서 미/아름다움의 핵심을 진선미[眞善美 Good, Truth and Beauty]로 요약했다. 그렇다면 진선미라는 기준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가. 아리스토텔레스 시대부터 근대 이전까지의 미적 기준은 감각에 근거한 유패와 불쾌였다. 그런데 바움가르텐은 예술이 가진 특유한 미의 영역이 있다고 간주하고, 그것은 감각을 포함한 여러 가지의 하위인식능력과 관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이성이나 논리와 같은 상위인식능력과 감각이나 감성과 같은 하위인식능력이 있으며 진선미는 '무엇이 사람들의 하위인식능력을 자극하고 감동시키는가를 물어서 귀납적으로 추출한 개념이다. 18세기에는 규칙, 조화, 이성, 질서 등을 토대로 한 프랑스 신고전주의가 문예사조의 주류였다. 이때 바움가르텐은, 예술은 미적 감각을 파괴하는 상위인식능력인 이성과 논리보다 감각, 감정, 지각, 허구, 정서, 상상력, 창의성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바움가르텐은 인간의 정신을 이성, 감정, 의지로 구분하고 감성적인 영역이 미의 원천이라고 설명했다. 원래 미학이란 말은 느낌 혹은 감성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Aesthetitica에서 유래한다. 그러므로 바움가르텐이 말하는 미학(美學)은 과학적으로 분석이 가능한 '감성적 인식의 학문(Aesthetica est scientia cognitionis sensitivae)'이다.[2]

바움가르텐은 예술이 인간의 감각을 완성시키고 인식을 개발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보았다. 특히 미는 예술에서 최고조로 드러나며 예술에는 예술적 진리와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것은 예술작품에는 다양성, 풍부함, 대비, 대조와 같은 예술만의 특징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느낌에 대한 지식 그리고 경이(驚異)와 직관(直觀)은 상위인식능력만큼 중요하다. 이처럼 느낌을 절대적으로 중요시했던 그는 예술가의 창작행위는 바로 미적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보았다. 바움가르텐이 말한 미적 감각은 라이프니츠가 정립한 원자(原子)가 가진 다양성 및 역동성과 유사하다. 왜냐하면 예술에서 매우 중요한 인간의 주의력은 질서, 통일성, 규칙, 조화만으로 유지되지 않고 풍부, 다양, 변화, 대조, 대비 등이 있어야 유지된다. 따라서 예술가는 독창성을 발휘하여 다양하고도 풍부하게 표현해야만 독자/청자/관객의 주

의력을 유지하는 한편 작품의 통일성도 기하면서 감동을 줄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표현의 다양성은 외연적 명석함(extensive clarity)을 포함한 통일성 속의 다양성이다. 바움가르텐은 미학(美學)이라는 학문을 창시했으며 예술철학, 예술비평, 창작방법론, 예술교육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예술(藝術)이라는 용어는 '민주주의', '문화'와 같은 다른 많은 일본식 한자어로 메이지 유신시대 '西周(니시 아마네)'가 'liberal art'를 번역한 용어로 쓰이다가 후에 의미가 추가 변경되어 현재 'art'와 같은 의미로 쓰는 것을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다.[3]

그러면 현재와 같은 예술의 순수성에 대한 개념은 강조되었는가. 순수예술[4]이라는 이상은 영국의 철학자 콜링우드(R. G. Collingwood, 1889 - 1943)의 1938년 저작 "예술의 원리"(The Principles of Art)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다. 콜링우드의 이론의 출발점은 그의 관점에서 본연의 자세를 벗어난 유사예술(類似藝術)을 지지하는 당시의 예술 상황을 비판한다. 콜링우드는 원래 미학 이론과 아름다움의 개념 그 자체가 아니라 오히려 예술을 대상으로 한 이론이 체계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왜냐하면 미학의 관심은 형이상학적인 대상이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시간과 장소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콜링우드는 자신이 놓여있는 예술의 상태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한 후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콜링우드가 지적한 유사예술에는 두 유형을 분류하고 있다. 그것은 마술예술(魔術藝術)과 오락예술(娛樂藝術)이라는 유형이다. 마술예술은 인간의 다양한 감성을 자극해서 인간을 정치 및 상업 등의 실제적인 목적을 가진 활동으로 유도하는 기능과 목적을 가진 예술로 정의한다. 그는 마술예술의 예로 교회를 위한 예술과 군악 등을 지지적하고 있다. 반대로 오락예술은 실제적인 목적이 없는 활동으로 단순히 감정을 고양시킬 만한 예술이다. 엔터테인먼트 예술의 개념은 그 정의에 근거하면 다양한 대중 예술을 포함한다.

유럽 미술사에서 마술 예술 및 오락예술이 지배해왔다고 콜링우드는 지적하고 진정한 예술(순수한 예술)은 이들 극복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순수예술은 마법과 오락성을 벗어나 순수하게 표현적이고 상상의 것 언어를 넘어선 언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3. 현대 자본과 예술의 거래

미술품의 가격결정 구조는 시장논리는 설명할 수 없는 미술작품이 합리적 경제적 논리에서 완전히 떠나 있는 독립왕국이다. 이 가격결정 구조를 누가 장악하고 있느냐에 따라 모든 미술의 권력과 자본의 구조가 재편되고 있다. 지금은 유럽이라든지 미국의 메이저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최초의 공공 미술관이 1793년도에 루브르 박물관에 시작된다. 1789 년 프랑스 혁명 이후 왕이 단두대에 사라지고 나서 시민의회는 이 왕가의 엄청난 가격의 유물들과 보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일반 대중들이 사적으로 소유하지 못하니 미술관이라는 공공 기금을 들여 일반 사람들에게 보여주자는 것이다. 전 세계에서 미술관의 공공성, 가격이 워낙 비싼 작품들이 많으니까 일반 시민들이 사지를 못하니까 그걸 국가에서 사서 일반시민들에게 보여주자는 문화정책은 미술에만 유일하다. 책이나 문학, 오페라는 대중들도 누릴 수 있으나 유일하게 미술만이 정부라든지 공공의 기금을 마련해서 미술관을 만들 수밖에 없을 정도로 비싸기 때문이다. 1980년대까지 미술관은 철저히 공공적인 영역에 놓여있었다. 그러나 대처와 레이건 이후, 신자유주의의 파고가 생기면서 모든 전 생활 영역에 사유화가 시작되었다. 공적인 부분들, 철도, 우편, 물, 의료보험 등 공공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모든 것을 사유화했다. 그런데 이 사유화 과정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게 공적 지원을 대폭 줄인 곳이 문화예술 분야이다. 1982년도에는 뉴욕시 순수문화예술 분야에서 공적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88%에 달했다. 그 돈으로 뉴욕의 미술관과 작가를 지원하였다. 그러나 1998년도에 신자유주의의 정책하에서 공적 지원은 1.2%로 줄어들게된다. 12%가 아닙니다. 1.2%로 엄청나게 줄어들었다. 미술관의 공공성을 담보하고 있던 공적 자금이 대폭적으로 줄여진 후,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 것이 '투기적 후원자' 그룹들이다. 그러면서 세금 감면 혜택이 들어가게 되죠. 순이익이 1억이 났다, 그럼 이것을 제대로 신고하면 60% 정도의 세금을 내야하지만 그런데 미술관에 50%, 5천만 원에 달하는 작품을 기증하면 그만큼은 세금을 감면 받는다. 그냥 냈을 때는 6천만 원을 내야 하는데 미술품을 기증하는 대신 2천만 원만 정도만 내면 되는 구조인 것이다. 투기적 후원자 그

룹들이 작품을 사서 미술관에 기증을 하고 이 작품들이 1년이나 2년 후에 미술관에서 전시가 열린다면 기하급수적으로 가치가 올라가게 된다. 미술관은 컬렉션과 교육을 통해 공적인 기관으로 존재해야 하는데 점점 '투기적 후원자'들이 미술관 평의회의 '보드 멤버'로 참여하게 되면서 이 사람들의 영향력이 커지게 된다. 이 사람들이 미술관의 모든 정책들을 결정하게 된다. 그래서 '보드 멤버'라고 불리는 사람들, 미술관 평의회 위원들 10명 20명은 모든 고급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 2년 후에 로마에서 누구의 전시회가 있다면 '투기적 후원자' 그룹들은 1년 동안에 그 작가 작품을 집중적으로 싼 가격에 사들인다. 그리고 큰 미술관에서 대규모 전시회 하고 나면 작품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그 후 그걸 다시 파는 것이다. 유명한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전시가 정말 순수하게 작가를 위해, 일반 대중을 위해서 열린 것이 아닐 수도 있다. 현재의 미술관은 프랑스 대혁명과 함께 시작했던 미술관의 공공성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다. 사적 영역으로 변했고, 몇몇의 투기적 자본가들, 보드 멤버들의 사익을 극대화시키는 보조적인 기구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이다. 이것이 지난 20년간 미술계와 아트마켓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이로 인해 갑자기 미술작품이 천억, 이천억 하는 작품이 나오게 된 것이다. 생략[5]

### 4. 현대 예술가의 갈등

자본의 장식품 혹은 시녀로 전락한 예술생산자들은 엄한 중압감에 몸부림친다. 자본주의 생산체제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의 신상품을 고혈(膏血)을 짜듯 쥐어짜 내어야 하며 조각가 마크 퀴이 자신의 실제 두상과 똑같은 크기로 만든 '자아(Self)'라는 제목의 작품을 실제 자신의 피를 5년간 뽑아 제작하였다. [6] 그 위기감은 자멸과 자살로 이끌기도 한다. 현대 미국예술의 전위 Jackson Pollock은 1956 년 45 세의 나이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 후 갓길 나무에 충돌하여 자살하듯 자멸하였다.[7] 송고함의 작가 Marc Rothko 는 67 세의 나이에 상상의 한계에 좌절해 자살하였다. 우리에게 널리 그 예술적 창조성의 신화가 알려진 대표적 작가들의 자기 고백들에 귀 기울여 보자. 대한민국이 낳은 최고의 세계적 예술가라 하는 백남준

은 1984년 6월 35년 만에 귀국해 연 기자회견에서 “전위 예술은 한마디로 신화를 파는 예술이지요. 자유를 위한 자유의 추구이며, 무목적한 실험이기도 합니다. 규칙이 없는 게임이기 때문에 객관적 평가란 힘들지요. 어느 시대건 예술가는 자동차로 달린다면 대중은 버스로 가는 속도입니다. 원래 예술이란 반이 사기입니다. 속이고 속는 거지요. 사기 중에서도 고등 사기입니다. 대중을 얼떨떨하게 만드는 것이 예술입니다.”라고 하고 있다.

또 다른 예를 들어 보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작가 중 하나인 이중섭이 죽음에 임박해 “내가 그림을 그린답시고 세상을 속였다. 공밥을 얻어먹고 다니면서 뒷날 무엇이 될 것처럼 사기를 쳤다”고 자조하면서 정신분열 증세와 간질환으로 지키는 이 없이 쓸쓸히 죽어 갔다. 20 세기를 대표하는 작가 중 하나인 너무나 유명한 피카소는 이프라임 키손(Ephraim Kishon)이 쓴 책에서 기록된 그의 유언에서 “나는 오늘날 명성뿐만 아니라 부도 획득하게 됐다. 그러나 홀로 있을 때면 나 스스로를 진정한 의미에서의 예술가로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단지 나의 시대를 이해하고 동시대의 사람들이 지닌 허영과 어리석음, 욕망으로부터 모든 것을 끄집어 낸 한낱 어릿광대일 뿐이다. 그림 한 장에 수백만 마르크를 지불하는 것은 예술과 문화의 본질적인 가치 평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아무 가치도 없는 작품 하나하나에 터무니없는 돈을 쳐바르고, 그 작가들을 신격화하며 그들을 알 수 없는 말로 칭송하는 것은 돈에 대한 탐욕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결국 최고의 예술가로 명성과 부를 획득하고 신화화 되었던 피카소는 그의 죽음 앞에서의 다급한 고백으로서 현대미술의 허구성을 깨부수고 있는 것이다. 왜 그는 죽음 앞에서 그의 삶을 두 번 죽게 하는 독배를 든 것인가? 왜 자신의 삶 전체를 처절히 비웃고 유다처럼 부인하고 있는 것인가?

## 5. 결론

우리에게 예술이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은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라는 말로 바꾸어 물어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다른 길은 가는 예술가들을 통해 그 아름다움에 대한 영상을 만들 수 있었다면 이글은 성공

한 것이다. 아름다움은 삶에 태도와 양식에 대한 우리의 경향성이며 방향이다. tv 영화 유무선 인터넷 미디어 교육 등을 통해 부드럽고 달콤하게 은밀하고 치밀하게 일상으로 주입되는 자본의 욕망을 따라 갈 것인가. 선택의 길이 우리를 마주하고 있다. 과연 우리가 어떤 예술을 할 것인가.

## 참고문헌

- [1] 晉書 藝術傳,  
<https://zh.wikisource.org/wiki/%E6%99%89%E6%9B%B8/%E5%8D%B7095>
- [2] <https://www.etymonline.com/word/beauty>
- [3]  
<https://ja.wikipedia.org/wiki/%E3%83%AA%E3%83%99%E3%83%A9%E3%83%AB%E3%83%BB%E3%82%A2%E3%83%BC%E3%83%84>
- [4] [https://en.wikipedia.org/wiki/Fine\\_art](https://en.wikipedia.org/wiki/Fine_art)
- [5] [http://www.nanum.com/site/with\\_forum\\_1/1075](http://www.nanum.com/site/with_forum_1/1075)
- [6] <https://www.biography.com/artist/jackson-pollock>
- [7] [http://www.nanum.com/site/with\\_forum\\_1/1075](http://www.nanum.com/site/with_forum_1/1075)